

우리나라 미인대회를 통해 본 이상적 몸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대회를 중심으로 -

남궁 윤선* · 한 자 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성균관대학교 강사⁺

A Study of the Ideal Body in Korean Beauty Contests

- Focus on Miss Korea and Super Model Contests -

Yun-Sun Namgung* · Cha-Young Han⁺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1. 1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 consistently a phenomenon in Korean Women's ideal body with analyzing the change of the body of winners in beauty contests such as Miss Korea and Super Model.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bjective data of body size of winners in beauty contests. The meanings in the change of Korean Women's ideal body are as follows. First, the body have got the commercial value with the start of Miss Korea contest and maximized its commercial purpose with the introduction of Super Model contest. While Miss Korea contestants are evaluated by their body, character, intelligence altogether, Super Model contestants are evaluated by body itself than other factors. So the body of Super Model is accepted as the highly value added commodity. Second, a tall height as a natural gift among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body have become the significant factor of the myth of social and commercial success.

Key words: body(몸), ideal body(이상적 신체), beauty contest(미인대회)

I. 서론

몸은 과거 이성과 정신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점차 그 중요성과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재 여러 학계에서 논쟁이 집중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몸

에 관한 관심이 부쩍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담론들이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함의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오늘날 사회를 살펴보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데서 각별한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 사회의 몸과 관련한 여러 방면의 연구들은

페미니즘적 접근¹⁾²⁾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의류학 분야에서는 심리학적 접근³⁾, 통시적 접근⁴⁾⁵⁾, 미학적 접근⁶⁾⁷⁾, 사회학적 접근⁸⁾ 등에 의해 몸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몸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몸에 내재된 개념에만 치중한다거나 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만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어 그러한 함의들이 본래부터 담겨있다는 당위성만 역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의 몸을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한 실제 맥락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적인 몸이 변화해온 특징을 체형 변화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고찰을 통해 보다 직접적이고 일관된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피상적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 우리의 몸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로 이루어져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공개적으로 수치화된 평가를 통해 이상적 미에 절대적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공중과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공식적인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대회의 1, 2, 3위에 해당하는 역대 수상자들의 체형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 치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대회의 선발요강과 그러한 미인대회에 나타난 몸 이미지와 관련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과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신체 치수 비교를 통해 이상화된 몸과 현실 속에서의 몸을 고찰함으로써 다각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여성들의 신체치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표준 체위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그 대상은 신장에서 정점을 이루는 기점이면서 미스코리아 대회와 슈퍼모델 대회에서의 연령 제한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18세~24세까지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신체 치수는, 미스코리아의 경우 신체 치수 자료 검색이 가능한 1971년부터, 슈퍼모델은 대회 개최년도인 1992년부터, 국민표준체위는 조사가 실시된 해인 1979년, 1986년, 1992년, 1997년, 2002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비교기준으로 삼은 년도는 국민체위조사 실시년도이다. 다만, 국민표준 체위조사의 경우 1997년 이후 공식 발표되어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이 없었으므로, 2002년의 신체 치수는 2003년에 실시될 본 조사에 앞서 이루어진 20대 미혼여성 450명 대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신체 치수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고, 그러한 몸 이미지에 관련한 기사 및 담론은 주제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KINDS를 이용하였다.

II. 현대사회와 여성의 몸

1. 여성의 이상화된 몸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몸은 정신만을 강조하고 감각, 감정, 신체를 도외시키고 경시하는 문화적 편향에서 벗어나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⁹⁾¹⁰⁾. 점차 몸은 자아와 동일시되어 끊임없이 완성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사람들은 몸을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와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특정 문화권내에서 사회, 정치, 경제 등 물리적 측면은 물론 사상, 가치 등 정신적 측면을 함의한 하나의 텍스트이자 기표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의 몸은 단순히 재생산적 가치를 지닌 몸에서 일하는 몸, 쾌락을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몸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화 생산의 주체로서의 입장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가부장문화와 상업주의적 소비문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많은 논의를 증폭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상화된 몸은 현대사회 속에서 소비문화의 미의 신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기표로서 작용한다. 몸을 과시하는 장인 미스코리아는 여성 신체의 각 부분을 수치화하여 평가

적 관점을 가지는 반면, 미스터코리아는 남성 신체를 수치화하지 않으며 전국체전의 한 종목으로서 일종의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여성의 몸이 수치화되고 관리 가능한 대상이자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¹⁾. 이상화된 여성 몸의 이미지는 젠더를 포함한 시대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문화적으로 규정된 미 기준을 추구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몸에 관한 수많은 담론들은 그러한 극단적으로 이상화된 몸 이미지가 실생활에서 존재하는 여성들의 몸과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성 몸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가치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²⁾¹³⁾.

2. 미인대회와 몸

세계에서 최초로 열린 미인 선발대회는 1921년 9월 초, 미국 애틀랜틱시에서 피서객들을 좀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한 상업적 전략에서 시작된 '제1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이다. 그 다음해에는 57개 도시에서 대표를 출전시켰고, 당시 인기 시작한 영화와 사진의 붐과 맞물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미국 전역에서는 수천 개의 미인대회가 생겨났다.

미스아메리카 선발대회¹⁴⁾는 수영복 심사와 출전자들의 교양미달 문제로 많은 논란 끝에 1927년에 중단되었으나 1935년에 부활하면서 여성의 지적요소를 부각시켰으며, 그것은 1940년대 들어 높아진 여성의 대학 진학률에 따라 상금으로 장학기금이 수여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애틀랜틱시 상공회의소 의장 프레드릭 히크만(Frederick Hickman)의 언급은 미스 아메리카가 갖는 사회적 위상 및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미스 아메리카는 최고의 이상을 대표한다. 미스 아메리카는 예술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아름다움, 우아함, 지성의 결합체이다. 미국의 모든 소녀들이 모델로 삼을만한 그러한 유형의 여성이다." 이렇듯 미스 아메리카는 여성 노소 모두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타이틀을 이용해서 수백만 미국인에게 여성자신과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대변하는 위치를 갖게 된다.

현재 미스 아메리카의 선발요강에는 17-24세, 미

국시민, 해당 참가지역에 연고가 있을 것, 미스 아메리카 조직위원회에서 공표한 조건에 맞는 인성, 미스 아메리카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기에 충분한 건강, 시간과 책임 엄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인대회는 1952년, 29명이 참가한 세계 규모의 미스 유니버스(Miss Universe) 대회를 낳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제1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할 후보를 뽑기 위한 대회로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미인대회는 1957년 5월 19일에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응모자격은 만 18세 이상 28세까지의 한국여성으로서 지·덕·체와 진선미를 겸비한 사람, 직업의 유무는 불문하나 흥행단체 또는接客업소에 종사한 일이 없는 미혼여성으로 규정했다. 57명이 참가했던 1회 대회 이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거듭했고, 1972년부터 지상파 방송으로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이를 뒷받침으로 1980년 7월 제29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¹⁵⁾.

1980년대에는 전세계 최고의 슈퍼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서 세계슈퍼모델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80년대의 얼굴("Face of the 80's")이라는 명칭으로 1980년 9월 세계 최대의 모델 에이전시인 포드모델사(Ford Models, Inc.)에 의해 몬테카를로의 스포팅 클럽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회는 현재 전세계 40~50여개국에서 각 대표 1명씩이 참가하여 최고의 모델을 선발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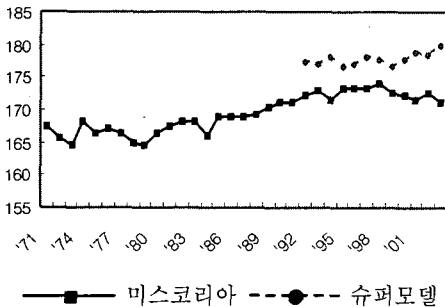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가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 패션 시장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모델을 뽑는다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2001년부터는 SBS 美가 주관하고, 산업자본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입상자 전원은 주관사와 전속 계약 체결에 의한 모델 또는 연예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되었다¹⁶⁾.

Ⅲ. 우리나라 여성 몸에 나타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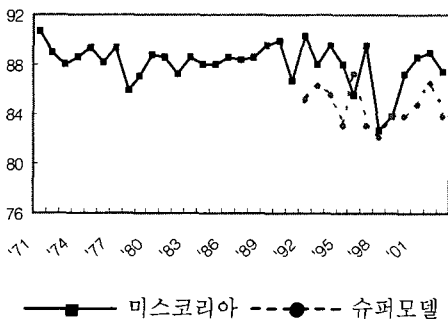
1.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몸의 변화

우리나라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몸 이미지를 보기 위해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몸매의 굴곡을 보여주는 허리둘레 대 엉덩이둘레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평균 키의 변화를 고찰한 <표 1>을 보면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대회 수상자들이 대체로 해마다 키가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의 키는 1971년도에 평균 167.3cm였던 것이 1990년대에 170cm를 상회하면서 5~6cm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슈퍼모델 대회 수상자 평균 또한 1992년 177.5에서 1997년 178cm, 2003년 180cm로 계속해서 커짐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슈퍼 모델 대회가 개최된 이후 부터는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의 키조차 170cm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미인의 신체 조건에 키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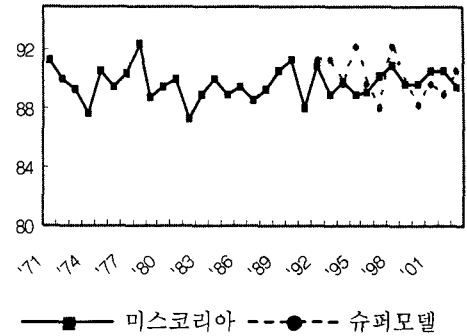
<표 1> 역대 미인대회수상자들의 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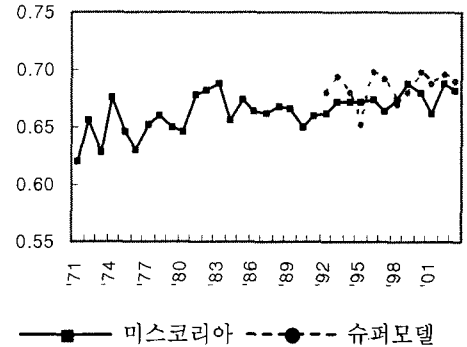
<표 2> 역대 미인대회수상자들의 가슴둘레 변화



<표 3> 역대 미인대회수상자들의 엉덩이둘레 변화



<표 4> 역대 미인대회수상자들의 허리둘레 대 엉덩이 둘레 비율(W:H)



반면 가슴둘레<표 2>나 엉덩이둘레<표 3>는 해마다 기폭이 있고 특정 방향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체형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키만 꾸준히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수상자의 평균 키<표 1>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슴둘레<표 2>와 엉덩이둘레<표 3>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슈퍼 모델의 몸이 더 마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의 슈퍼모델의 허리둘레 대 엉덩이둘레 비율(W:H)을 비교해 볼 때에도 나타난다. W:H는 1.0에 가까울수록 일자형의 몸매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1992년에서 2003년동안 (1995년, 1998년, 1999년을 제외하고는 슈퍼모델의 W:H이 미스코리아의 W:H보다 1.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슈퍼모델의 경우 더 마른 체형이면서 일자형의 몸매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1971년 0.62의 W:H의 비율이 2003년에 0.69가 될 때

까지 점차 높아짐으로써 몸의 굴곡이 없는 일자형의 몸매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2.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몸과 일반여성들의 몸 비교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몸과 일반 여성들의 몸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표 5>에서와 같이 신체 치수를 비교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18~24세 여성의 표준 키는 1979년 155.6cm에서 2002년 162cm로 약 6cm가량이 커졌으며, 키는 커지는데 반해 가슴둘레는 오히려 3cm가량이 작아졌다. 허리둘레 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은 0.72~0.75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치수의 변화는 몸 전체가 좀더 마른 몸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인대회 수상자들과 비교해보면, 우선 키에 있어 일반 여성들과 1971년도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의 차이가 9cm 안팎이었던데서, 1986년경부터 10cm이상으로 격차가 커졌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1992년부터 시작된 슈퍼모델 대회의 수상자들 평균 키와는 무려 16~18cm 이상의 격차를 보이므로 일반인들이 슈퍼모델의 몸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 여성들의 실제 몸에 있어서 키는 커지고, 가슴둘레는 작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체형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최되었으며, 그 한해 전인 1956년에는 처음으로 패션쇼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부터 여성의 몸이 보여지고 평가되는 대상으로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몸을 수치화함으로써 평가하며 이는 곧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즉 미인대회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신체치수에 도달해야만 했고 그러한 신체 치수를 지닌 순위에 든 입상자들의 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체미의 이상(理想)이었다. 미인대회를 통해 일정 수치로 계량되고 세밀하게 표분화된 몸의 기준은 미인대회 수상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경하는 지망생들이나 일반여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의학적으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인대회의 수치화된 몸의 기준에 자신의 몸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례¹⁷⁾는, 몸이 건강과 쾌락 등 다양한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장소라기 보다는 미인대회의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하는 외형적 아름다움만을 강조한 표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한달여의 기간동안 준비비용으로 자신의 몸을 위해 7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을 쓰면서¹⁸⁾ 관리하여 제시하는 극단적이고 획일화된 이상형은 이를 지망하는 일반 여성들에게 몸의 관리에 대한 욕망을 자극

<표 5> 일반인들과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신체 치수 비교

비교대상 \ 년도	1971	1979	1986	1992	1997	2002
국민 키		155.6	156	159.3	159.8	162
표준 B-W-H		85.5-67.7-89.1	82.4-65.3-88.3	82.3-65.3-89.8	81.8-65.6-89.3	82-66-90
미스 키	167.3	164.7	168.7	172.3	173.2	172.7
코리아 B-W-H	90.6-56.7-91.4	87-57.7-88.7	89-58.3-89.7	90.3-60.3-91	89.7-60-90.3	89-62.3-90.7
슈퍼 키				177.5	178	178.3
모델 B-W-H				85.1-62.2-91.4	83-61-88.1	86.4-61.8-88.9

* B-W-H : 가슴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

IV. 우리나라 미인대회에 나타난 몸의 변화 특성

1. 몸의 상업적 가치의 확대

우리나라에서 제1회 미스코리아 대회는 1957년에

하는 가시적인 재현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슈퍼모델 대회의 개최는 여성 몸의 상업적 가치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표 6>에서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선발대회의 선발요강을 비교해보면 육체가 갖는 중요성과 상업적 가치가 그 정도에 있어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선발대회의 선발요강 비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슈퍼모델 선발대회
심사규정 및 대회일정	<p>“미스코리아 심사과정은 예비심사 2회와 본심사 1회 등 총 3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발한다. 1차 예비심사는 수영복과 인터뷰로 진행되며, 2차 예비심사는 선발대회당일 오전 인성과 교양을 평가하기 위한 인터뷰로 진행된다. 예비심사시 후보자는 화장없이 심사에 응해야 한다. 본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예비심사를 기초로 수영복 심사를 한 뒤 1차로 전체 후보 중 20명을 선발한다.(동점자 발생시 1차 통과자가 늘어날 수 있다).</p> <p>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 수영복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다시 본선 진출자를 뽑으며 이들 중에서 타이틀의 주인을 결정하게 된다.</p> <p>본심은 채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림픽 채점제를 도입. 후보가 받은 접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또한 3주간 진행되는 합숙기간 중 보여준 후보들의 매너를 심사에 참고하여 합숙장소 무단이탈, 외부인 접촉 등 대회규정을 어긴 후보들에게는 심사에 불이익을 적용. 단체생활에서의 질서인식을 중시하는 등 외모 뿐 아니라 내면적인미를 갖춘 미인을 뽑는데 주력한다.”</p>	<p>예선대회: 심사 -1차: 평상복 심사 (부름 보이는 치마) 2차: 체형심사복 심사 (복장은 SBS美에서 제공) 3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당일 현장에서 발표</p> <p>전문교육과정: 6월 16일~9월 02일 국내합숙: 7월초 전야제: 9월 25일 본선대회: 9월 26일</p>
참가자격	<p>지역대회 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이상 학력으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인자 2003년 기준-1979년 5월 19일~1985년 5월 31일 출생자 -대한민국 및 해외동포 미혼여성 -해당 참가지역에 연고가 있는자(본적, 출생, 학교, 직장, 주민등록상 현재거주 2개월 이상 중) -미스코리아 본선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자 <p>본선대회 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진, 선, 미 또는 해외 각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후보 단, 대회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시 참가자격 및 입상자격 박탈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품행이 단정한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본선대회일 기준 만 16세부터 24세까지의 미혼 여성 -국적: 국적불문(한국계) -신장: 165Cm 이상(신장은 심사기준에 영향없음) -경력: 모델경력불문 -입상자 매니지먼트 특전과 관련한 소속: 개인소속 기획사나 매니지먼트사가 있는 경우는 참가할 수 없으며, 패션관련 매니지먼트(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된 경우는 참가 가능함. -입상자 전원에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SBS美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매니지먼트 활동을 할 수 있음. 단, 패션모델 에이전시 소속일 경우 패션쇼 등의 패션모델 활동에 있어서만 SBS美와 협의하에 패션모델 에이전시가 관여됨.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품행이 단정한 여성. 단, 대회기간 중 결격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시 참가자격 및 입상자격 박탈. 모델교육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석 및 수험 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부국 권한으로 자격 박탈.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재학 증명서 1부 -의료보험증 1부 -기타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가신청서 부착용 사진-심사와 무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및 수험표 부착용 사진(컬러 여권용 사진 2장, 컬러사진 2장(정면 상반신 1장 및 자유포즈 전신 1장),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에 한함)

우선, 두 대회는 개최 이유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발 요건을 비교한 <표 6>을 보면 미스코리아 대회가 순수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을 뽑기 위한 대회인 것과는 달리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패션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스코리아와 슈퍼모델 대회가 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선발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규정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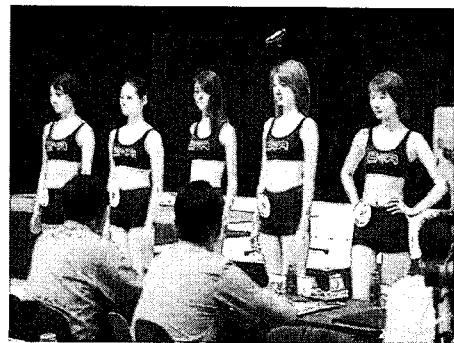
미스코리아는 인성 쪽에 비중을 둬으로써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반해, 슈퍼모델은 몸의 조건만이 강조된다. 이로 인해 미스코리아가 고졸 이상의 학력제한은 두지만 신장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데 비해, 슈퍼모델은 학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키는 165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연령에 있어서도 미스코리아보다 두 살이 적은 연령 하한선을 두고 있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내적인 미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수영복 심사와 인터뷰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으며, 심사위원단 또한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로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임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슈퍼모델 대회는 무릎 보이는 치마의 평상복 심사와 체형복 심사 이후 면접을 거치며,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에도 몸의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 들어있다.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착용하는 수영복은 원피스형<그림 1>인데 비해, 슈퍼모델들이 심사를 위해 착용하는 체형복은 배가 드러나는 탱크톱에 타이트한 드로어즈 팬츠<그림 2>로서 몸 본래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또 이들은 심사하는 위원단은 패션 분야 전문가들로서 상업적 가치를 발휘할만한 가능성 있는 모델들을 발굴해내며 산업자원부에서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들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두 대회의 개최 목적에 차이가 있어 몸에 대한 강조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미스코리아 대회가 1988년에서 2002년까지 MBC를 통해 전국 생방송 중계되던 것이 시청률 하락과 함께 2003년부터 케이블 TV와 인터넷 방송으로만 중계되는데

반해, 슈퍼모델대회는 전국 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회제도적으로 몸에 대한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대회에 앞서 이루어지는 합숙기간이 미스코리아 대회가 3주인데 비해 슈퍼모델 대회가 3개월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몸은 만들어지는 자본으로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미스코리아 본선¹⁹⁾



<사진 2> 슈퍼모델 예선²⁰⁾

2. 큰 키의 특권화로 몸을 통한 차별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육체 그 자체와 육체를 이용한 사회적 활동 및 정신적 표상은 사유재산 일반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²¹⁾. 따라서 당대의 이상적 미에 다다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본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이상적 미를 대중들이 따라갈 수 없을 때, 그것은 배타적인 기능을 하며 파워를 갖는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얼굴을 통해 표출되는 아름다움이 그 전제가 되었다. 아름다운 얼굴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가치를 지녔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성형수술이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이 주로 얼굴의 국소부위에 치중된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이 본격화되고 인구 당 성형외과 의사의 비율이 세계 최고인 한국 사회²²⁾에서 예쁜 얼굴은 고쳐서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예쁜 얼굴 외에 큰 키와 성형을 위해서 훨씬 큰 고통이 수반되는 날씬함이 새로운 사회적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성형수술의 부위는 점차 몸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 지방흡입술 등 비만성형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과 더불어, 성형수술로 변형이 불가능한 큰 키의 조건은 파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 여성학자²³⁾는 사회가 미인을 여성의 1%에 국한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과 기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얼굴은 성형을 통해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인의 조건은 몸 전체로 확산된다고 풀이하였다²⁴⁾.

미스코리아 대회가 독점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적 미를 대표하던 시기에는 몸의 조건 뿐만 아니라 내적인 미가 발현되는 얼굴부분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몸에 대한 비중의 확대는 가시화되었으며 몸 자체가 갖는 특권적 위치가 얼굴에 비해 점차 확고해져 갔다²⁵⁾. 특히 1992년 슈퍼모델 대회를 전후한 시기에 몸 특히 큰 키에 대한 비중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종 미인대회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한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미스코리아는 키가 175cm, 슈퍼모델은 180cm 이상은 돼야 명함을 내민다.”고 하여 큰 키의 몸매가 미인대회에서 필수적이라 배타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²⁶⁾. 이는 선발 요강에 키가 작은 것이 불이익이 될 아무런 암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스코리아 대회의 수상자들의 평균키는 1989년대 이후부터 줄곧 170cm 이상을 웃돌았으며 1992년부터 선발된 슈퍼모델 대회의 수상자들의 평균키는 176cm가량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미인대회에서 큰 신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국민표준 신장과 슈퍼모델 수상자와의 신장이 16~18cm가 차이난다는 사실은 그러한 체형이 갖는 특권적 힘이 더욱 커지고 이것이 곧 차별화의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큰 키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패션모델은 전문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의 이소라, 이종희, 홍진경, 이선진 등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모델 스타들은 연예계 활동이나 CF 등 다양한 활동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모델과가 신설되고 모델을 유망직종으로 여기는 수많은 모델 지망자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슈퍼모델 대회의 입상자 전원에게 패션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의 부여는 그들의 날씬함과 큰 키가 곧 젊음, 사회적 성공 등으로 신화화됨을 보여준다. 패션모델의 육체는 기능적인 사물이며 기호의 집합체이다. 그들의 포즈와 날씬함, 특히 큰 키는 하나의 형태이며 자본의 형태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커다란 이점을 지니는 태생적으로 부여받는 차별화를 위한 특권으로 작용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인대회 수상자들의 몸의 변화 과정을 정확한 신체 치수 자료와 기사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 속에서 나타난 특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 이상(理想)에 관련한 현상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중과 방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의 기준을 제시했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슈퍼모델 선발대회의 역대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몸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함과 동시에 일반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적인 몸과 실제 몸 간의 객관적 수치를 비교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미인대회 수상자들과 일반 여성 모두 큰 키에 마른 몸매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들 간에 평균키의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일반여성들의 이상적 몸의 수

치에 대한 괴리감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인대회의 선발 요강이나 미인대회를 둘러싼 신문 기사 담론을 분석하여 파악한 우리 사회 여성의 이상적 몸의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수상자들의 몸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이상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몸이 하나의 자본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장이 된다. 이러한 몸의 이상화는 슈퍼모델 대회 수상자들의 마른 몸을 통해 더욱 강조되어 육체를 통한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2. 공중과 방송으로 남게 된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는 몸, 특히 성형으로도 변형 또는 조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큰 키의 비중이 크다. 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상이자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육체의 특권으로 몸을 통한 차별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이상적 여성 신체상에 나타난 변화 특성을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며 후속연구에서 미인대회 이외의 이상적 몸에 대한 연구-미디어에 제시되는-를 병행한다면 더욱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몸에 대한 현상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1)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한국 여성학, 17, pp. 181-184.
- 2) 한설아 (1998). 여성의 외모관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다이어트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조선명 (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태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권기영, 조필교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pp. 681-706.
- 5) 김수경 (1998). 서양복헌식에 표현된 여성 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 pp. 163-179.
- 6) 이윅희 (2001). 이상적 인체미와 복식디자인의 착시 효과; 사적 연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윅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이민선 (2001).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윤영주 (2000). 일간지 및 여성지에 나타난 한국 여성

의 다이어트 담론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Featherstone, M., *op. cit.*, pp. 35-63.
- 11) 윤영주. 앞의 책.
- 12) Featherstone, M. (1993).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김성호 역. 문화과학, 4, pp. 35-63.
- 13) Wolf, N. (1991). *Beauty myth: How images of beauty are against women*. New York: Anchor Books.
- 14) <http://missamerica.org> 자료검색일. 2003. 9. 13-2004. 1. 5.
- 15)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 2003. 9. 13-2004. 1. 5.
- 16) <http://sbsme.sbs.co.kr> 자료검색일. 2003. 9. 13-2004. 1. 5.
- 17) 조선일보 (1997. 11. 19). 모델이 되고 싶다. 너도나도 열병. 모델 열병. 자료검색일 2003. 12. 24. 자료출처 <http://www.kinds.or.kr>
- 18) 윤영주. 앞의 책.
- 19)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 2003. 9. 13-2004. 1. 5.
- 20) <http://sbsme.sbs.com.kr> 자료검색일. 2003. 9. 13-2004. 1. 5.
- 21) Baudrillard, J. (1996). 앞의 책.
- 22) 한국일보 (2003. 11. 6). 미의 기준, 동서양 통일. 자료검색일 2003. 12. 24. 자료출처 <http://www.kinds.or.kr>
- 23)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편집장.
- 24) 경향신문 (2000. 1. 19). 그대 이름은 여자, 미인대회의 허와 실. 자료검색일 2003. 12. 24. 자료출처 <http://www.kinds.or.kr>
- 25) 조선일보 (1997. 11. 19). 앞의 글.
- 26) 경향신문 (2000. 1. 12). 그대 이름은 여자, 미인상의 변천. 자료검색일 2003. 12. 24. 자료출처 <http://www.kinds.or.kr>